

종합기기 생산연구소 설치를 지상과제로

— 한국특수화학기계 —

□ 편집부 □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세계도 신용을 우리 한국특수화학기계의 사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승우(38세)사장의 경영자다운 명쾌한 대답이다. 홍사장은 15년 동안 엔지니어로 환경업무에 재직하면서 환경기계에 있어서 외국상품만을 선호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국산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83년 2월 한국특수화학기계를 설립하게 된 것, 회사명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6개월을 고심한바 있는데 지금은 이름 그대로 명실상부한 국산 계측기계 전문회사로 발돋움하여 현재 무려 4년만에 국내 대기업체를 포함하여 1,300업체를 거래해온 실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85년, 환경청장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86년

환경보전협회장 표창을 받은 성실한 기업으로서 순수한 자체 기술과 자본으로 전직원이 실질적인기술요원이나 관리행정요원으로 관리업무, 제품출고, 자금업무 등의 사무전산화를 통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견적작업도 10분이면 일주일 작업물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 경제적이다. 앞으로는 전직원의 책상에 컴퓨터 1대씩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전직원의 기술개발 요원화를 시도해 볼 예정으로 있는데,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정보대결이요 자료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듯이 지금까지 모은 자료만 해도 한차를 능가할 정도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터라 처우면에 있어서도 국내 대기업체 못지 않게 총 수령액의 700~800%의 보너스를 주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아 한순간도 멈출수 없다는 특수화학은 현재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열고 있을뿐 아니라 대만의 13만8천불 상당의 표면폭기장치를 놓고 세계20여개국에 참가했는데 일본은 경쟁에 밀려나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국특수화학기계만이 남아 경합을 벌이고 있단다. 또한 머지않아 이집트와 대만·파키스탄 등으로 시장을 확보할 전망으로 회사 자체에서 힘을 키워 환경부민간차원에서 종합기기 생산연구소를 설치하여 국내 환경유니트 상품을 고급화 시키고 환경기기 계측기 등의 정확효율을 높여 해외시장 판로를 열어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한국특수화학기계는 환경산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해 가고 있다.

